

Q&A

레드리본에이즈상담실

Q 변기 공동사용으로도 감염되나요?

집화장실에서 자위를 한 후 정액을 휴지로 닦고 변기에 바린 뒤 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득 든 걱정이 혹시 저 말고 가족들이 변기를 쓰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정상인이구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때 에이즈포비아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A 일상생활 중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전파는 거의 99%가량이 콘돔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인과의 일상생활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칙에 반개인 위생용품 개별사용, 기타 혈액 노출 주의; 충실하다면 감염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남께서는 비감염인이기 때문에 식구들과 생활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께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감염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HIV라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균을 가진 사람을 비정상인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잖아요. 감염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에이즈는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누구도 '예비'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감염?에 대한 '비정상', '당재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을 떨리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쉽게 감염이 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중 감염의 우려는 없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Q HIV 감염인간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면 안되나요?

콘돔 착용으로 에이즈 걸릴 확률은 어떤가요? 삽입하고 콘돔 찢어진 것도 없으며 키스와 쿠퍼액으로요? 그리고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만약 HIV보유자와 HIV보유자 감염이 된 두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나요? 무곤놈으로?

A 언제나 정확한 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해야 됩니다.

에이즈의 감염은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액, 모유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콘돔을 착용하셨다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강성교시도 같은 이유로 콘돔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사정전 분비되는 구퍼씨액에도 소량의 정액이 포함되어 감염의 가능성은 존재하니 삽입 전에 반드시 콘돔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기스는 안전합니다.

HIV 감염인간의 성관계시 감염인의 각자 갖고 있는 HIV기 농도변이를 쉽게 믿고, 치료약세에 대한 내성의 획득도 빨라서 서로간의 형질이 다르거나 한쪽이 내성을 획득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바이러스가 교차되면서

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병이나 간염 등은 면역기능에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Q 감염인의 혈액이 구강에 닿았을 때

나이트에서 만난 남성이랑 성관계는 다행히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남성의 가슴을 애무하던 중에 뭔가 기분이 찝찝 해서 이후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어봤는데 침과 피가 같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제가 잇몸에서 출혈이 좀 있어서 제 것인거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가슴쪽에 출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심한건 아닌지. 만약 감염인의 피가 제 잇몸의 상처로 침투했을 경우 감염확률이 큰가요? 저 너무 불안해서 타사 치기조차 식은땀이 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로 감염된 사례도 있나요? 아, 초소합니다.

A 감염인의 혈액에 상처가 노출이 된 경우라면

에이즈의 감염은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의 체액이 상처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로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처럼 구강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인의 혈액이 구강내로 유입되었다면 감염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감염될 확률은 감염인 상대의 혈중바이러스 농도나 상처의 크기 및 깊이,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상처가 혈액에 노출되었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글로 보아 잇몸의 출혈로 인해 혈액이 보인 듯합니다. 또한 혈액이 구강내로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침과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시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일이 걱정되신다면 12주 후에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Q 임질에 걸린 후 나타나는 증상이 에이즈 초기증상인가요?

작년 7월에 사귀 여친과 성관계를 했는데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여사분과 성관계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7월말이었는데 하루 나서 며칠 뒤 임질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후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요, 제 음경에 좀살처럼 검은 반점들이 생겼는데요, 음경주변 즉, 음모가 있는 피부 쪽에도 검은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건 갑자기 왜 생긴거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구 생각했는데, 아직도 계속 남아있네요, 조금씩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이런건 왜 생긴건가요?

A HIV 감염여부를 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7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며칠 뒤 임질 치료를 받으셨고 그 후 음경과 음경주변에 검은 반점들이 생겨 에이즈 감염이 걱정되어 불안하시군요. 에이즈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에 상처나 점막이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감염인이 아니라면 감염되지 않으니 너무 불안 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초기 1-6주경에 발열, 목 아픔, 전신이 쑤시거나 구토, 설사, 붉은 반선, 임파선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모든 감염인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감염인의 50-70% 정도에서만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한 증상으로 에이즈는 증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에이즈는 검사를 통하여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마음을 편

히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려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12주가 지났으므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지회 협회에서라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희 협회는 검사받는 분들 서로 간에 마주치지 않도록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1588 5448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무료, 익명검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결과도 당일 알 수 있습니다. 남매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성관계는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시므로 에이즈나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염인상담

Q 에이즈 치료제 복용 효과

저의 선배인데요, 200년도 7월에 확진받고 00대학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진당시 바이러스 수치가 4만 5천개 였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현재 350개로 떨어졌다고(남당의사님) 하네요. 그렇다면 꾸준히 약을 복용할 경우 바이러스 수치가 0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선배님의 건강에 대해 문의해주시거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군요. 아마도님의 관심이 선배님의 치료와 건강한 삶에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감염인의 치료에는 바이러스 수치와 함께 면역 수치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질수록 면역 수치는 높아지는 것이 치료제의 효과입니다. 일단 선배님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신 효과로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아(면역수치는 확인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신 걸로 여겨집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축하드립니다. 면역수치의 증가와 바이러스의 감소는 감염인들의 소망이자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게 하는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6개월만에 바이러스(RNA)가 45,000copies에서 350copies로 하락하셨으니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좋은 상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의학계에서 밝혀신 바에 의하며 바이러스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기준은 25copies가 최저 수량입니다.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된다라는 것은 실험시 측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수치가 25copies이하라는 것입니다. 에이즈의 완치(원진한 바이러스의 소멸)란 아직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단지 혈액이나 정액, 질액, 체액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일 뿐 여전히 뇌척수액 등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면 바이러스는 또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면역세포(CD4 T-cell)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제의 꾸준한 복용이 생명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며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선배님의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관리에 힘쓰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해서 많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